

# 이야기가 있는 전통자수 전시회 연다

내일부터 고창문화의전당서  
故최인순 작가 작품 선보여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고창전통자수와 함께 '이야기가 있는 전통자수' 전시회를 내일부터 23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연다.

'이야기가 있는 전통자수' 전시회는 3대를 잇는 가업으로 반세기가 넘는 최인순 여사의 작품과 그 뒤를 이어 전통 자수의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박미애, 이복남 작가 등의 작품을 전시해 고창 전통자수의 우수성과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무형 문화재인 작품성과 유형 문화재인 전통공예작품들을 선보이면서 고창 전통자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궁중자수와 민간자수 비교 자리를 마련해 무형과 유형의 문화재이자 지역 문화예술의 한 자랑스런 전통공예자수를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미술·문학 프로그램이 3월 9일 개강 한다.

## 무주군, 주민대상 문학교실 운영... 눈높이 맞춘 알찬 강좌 기대

무주군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미술·문학 프로그램이 3월 9일 개강 한다. 어린이 미술교실(초등학교 1~3학년 20명 대상)은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최북미술관)에 진행될 예정으로, 총 12회에 걸쳐 추상화 표현기법 배우기부터 과자집과 향초, 달력 꾸미기, 입체필통·미니어처 나무 만들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성인미술교실(민화)은 3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최북미술관)진행이 된다.

12주에 걸친 강좌에서는 민화작품에 대한 구상부터 스케치, 선긋기, 채색 등의 과정이 강의될 예정이다. 주민 이 모 씨는 "생소하기도 하고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민화작품을 보고 매력을 느껴 신청하게 됐다"라며 "강의가 끝날 때쯤 내 작품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환태문학관에서는 성인문학교실이 운영될 예정으로 3월 11일부터 6월 3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창작을 위한 기본이론부터 글쓰기 등에 관한 토론회 강의를 진행한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양정은 학예사는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이 군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강좌의 봄 학기가 시작이 된다"라며 "큰 관심과 사랑 속에서 신청자 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알찬 학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익산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은 제18기 문화학교가 개강하여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문화학교는 지난 2개월 동안 학생들을 모집한 결과 총 28개 과목에 550여 명이 신청하였으며,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실시된다. 문화학교 강좌는 풍물, 사물놀이, 취타대, 태평소, 한국무용, 서예, 서각, 단소, 민요 등 기존 전통문화교실에 미술, 우쿨렐레, 오카리나, 포크기타, 민화, 사진교실이 신규로 운영된다.

이원장은 개강식에서 "익산문화원은 전통 문화의 창조적인 현대화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문화학교를 통해 문화로 아름다운 삶, 문화가 있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학교는 2003년 2월 가요, 서예, 풍물 등 3개 교실로 운영되다가 작년부터 확대 운영되어 올해는 28개 과목에 이르고 있다. 문화학교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익산문화원 사무국(☎635-0120)으로 문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익산=조용주 기자

### 폭소 춘향전

**시놉시스**

오월 단오날 남원 사도 자제 이용룡은 음풍 방자를 데리고 광안루에 산책을 나온. 그 때 건너 쪽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춘향과 향단을 발견하고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은 시작된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이도령은 춘향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 한편 신관 사도가 부임되고 사도 생신 날 목에 있는 춘향을 불러 수정을 돌려 하지만 춘향은 사도의 명을 거절한다. 화가 난 사도는 춘향을 참수하리 명하고.....

**온 가족이 즐기는 이색 공연 '폭소 춘향전'**

2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 정읍시민 '50% 할인혜택'

2019년 봄을 맞아 퓨전 뮤지컬 '폭소 춘향전'이 이달 23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오후 3시와 7시 2회 공연된다. '폭소춘향전'은 고전 춘향전에 전문국악인 사물놀이와 풍물패의 전통음악, 대중가요 등과 각종 퍼포먼스를 가미해 풍성한 재미를 더한 퓨전뮤지컬이다. 대중에게 TV 인방극장의 감초 역할로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전원주(월매)와 최주봉(방자), 연극배우, 개그맨 등이 출연해 현대사회의 풍자와 해학을 담아내며

현장감 넘치는 볼거리를 선물한다. 시 관계자는 "관객들과 소통과 화합이라는 마당극의 장점을 살려 웃음과 감동을 주는 공연으로 가족과 함께 관람하기에 매우 좋은 작품이다"고 밝혔다. 관람료는 전 좌석 1만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출연진 소개**

 방지 최주봉	 박지 진형주	 김혜연 김혜영	 이정 이정성	 김한 김한영
 이정 이정호	 한은 한은순	 이정 이정국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